

# 대학생의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연관성

유승희\*, 강정희\*\*

군장대학교 간호과\*,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Seung-Hee Yu\*, Jeong-Hee Kang\*\*

Kunj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파악하고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Park(199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6일 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은 성적과 문제중심학습 수강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년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4학년이 다른 학년들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다), 비판적 사고 과목과 임상실습 수강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는 유의하였으나, 그 값이 너무 작았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 관련 교육과 평가, 또는 연구 시 두 부분 즉,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융복합, 학생, 비판적 사고, 능력, 성향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 5th to 16th 2012, using critical thinking instrumen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according to scholastic standards and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but difference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senior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other grade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ompletion of critical thinking subjec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nything. Upo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it was significant, although small. Therefore we should separate for evaluation into two parts;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Key words** : Convergenc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Disposition

\* 본 논문은 유승희(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임.

Received 9 March 2015, Revised 11 May 2015

Accepted 20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Jeong-Hee K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Email: yseunghee@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현대사회의 흐름은 임상현장에서도 반영되어지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다양한 질병들의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개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무엇보다 간호사는 스스로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응급과 비응급을 분리하고, 정확한 의료체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융복합(convergence)이라는 움직임이 다양한 학문에 확산되고 있는데 간호학에서도 간호학문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복잡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면 간호정보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필수로 수강하도록 하여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학과 기술학 분야들이 접목되어 의료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좀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간호 대학교 교육과정 이 간호학을 중점으로 하되 복합적인 기술들을 적절히 분배, 적용, 활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판적 사고 교과목이 필수교양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방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전공과목인 간호과정이라는 전공과목에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1]. 또한 간호대학 교육 목표 설정 시 비판적 사고 함양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양상이 발견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란 어떠한 상황에 대해 목적이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Ability)과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비판적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능 및 전략을 의미하며, 비슷한 표현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술, 비판적 사고기능 등이 있다. 반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이나 습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교육계에서 임상현장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3,4],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5,6,7,8,9,10]. 하지만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구분하여 재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분적 영역인 비판적 사고성향에만 편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를 개발하고[5],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비교하며[6], 문제해결능력과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7]. 둘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였다[8-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언되는 표본 설정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 연구를 실시해 보려한다. 즉,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며,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방법과 연구 방향 시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서이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1.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1.2.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 1.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을 비교한다.

#### 1.2.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한다.

#### 1.2.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전북대학교에서 IRB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6일까지 하였다. 대상자

선정크기는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였고(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20), 탈락률10% 고려하여 400명으로 선정하였다. 표적모집단은 전국의 간호대학생이고, 근접모집단은 전북지역 간호대학생으로 전북지역 간호 대학교 2곳을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그 후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된 총 387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구분하여 제작된 Park(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1]. 이 도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75문항이며 분석 25문항, 평가 25문항, 추론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점, 무반응 또는 오답은 0점을 주고, 자료제시형 3문항에는 0점에서 6점까지 정답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은 각 하위영역의 정답수의 합으로 0점에서 90점의 범위이다. 도구 개발 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과 실험 조작적 방법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비판적 사고력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72~.74, Cronbach's  $\alpha$ 는 .70~.74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66~.69였다.

### 2.2.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Park(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 정직 6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항목 3, 7, 9, 13, 17, 19, 20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고,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도구 개발 시 Cronbach's  $\alpha$ 는 .57~.69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59~.61 이었다.

##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2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2.3.4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구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년의 빈도는 1학년은 95명(24.5%), 2학년은 109명(28.2%), 3학년은 83명(21.4%), 4학년은 100명(25.8%)이었다. 성적이 상위 50% 안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9명(54.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5명(40.1%)이었다. 임상실습을 참여한 대상자는 100명(32.89%), 임상실습을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287명(67.11)이고, 문제중심학습을 수강한 대상자는 133명(34.4%)이었고,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254명(65.6%)이었으며,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강한 대상자는 287명(74.2%),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100명(25.8%)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87)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rade	1 <sup>st</sup> year	95	24.5
	2 <sup>nd</sup> year	109	28.2
	3 <sup>rd</sup> year	83	21.4
	4 <sup>th</sup> year	100	25.8
Scholastic standards	≥ 50%	209	54.0
	< 50%	155	40.1
	Missing	23	5.9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100	32.9
	No	287	67.1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133	34.4
	No	254	65.6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287	74.2
	No	100	25.8

###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영역별 평균(표준편차)은 분석 영역이 16.02(4.64)점, 평가 영역은 22.49(4.18)점, 추론 영역은 16.44점(5.06)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력 총점은 68.32(13.02)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별 평균(표준편차)은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영역 22.66(4.01)점, 지적 정직 영역 21.84(3.04)점, 신중성 영역 13.21(5.57)점, 객관성 영역 8.37(1.92)점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총점은 64.85(9.5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critical thinking (N=387)

Variables	M	SD
Critical thinking ability	68.32	13.02
-Analyticity	16.02	4.64
-Evaluation	22.49	4.18
-Inference	16.44	5.0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4.85	9.58
-Intellectual compassion sound skepticism	22.66	4.01
-Intellectual honesty	21.84	3.04
-Prudence	13.21	5.57
-Objectivity	8.37	1.9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은 다음과 같다. 성적( $p=.055$ )과 문제중심학습 과목( $p=.253$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1$ , Scheffe' 검증 결과 4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1,2,3$ ). 또한 임상실습 과목( $p<.001$ ), 비판적 사고 과목( $p<.001$ )의 수강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3>.

<Table 3> Ability by characteristics (N=387)

Variables	M	p (Scheffe')
Grade	1 <sup>st</sup> year	64.10
	2 <sup>nd</sup> year	68.04
	3 <sup>rd</sup> year	65.15
	4 <sup>th</sup> year	75.25
Scholastic standards	≥ 50%	63.05
	< 50%	60.79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68.09
	No	59.65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60.90
	No	62.32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63.17
	No	57.98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 $p=.657$ ), 성적( $p=.137$ ), 임상실습 과목( $p=.268$ ), 문제중심학습 과목( $p=.068$ ) 및 비판적 사고 과목( $p=.16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Table 4> Disposition by characteristics (N=387)

Variables	Mean	p
Grade	1 <sup>st</sup> year	65.38
	2 <sup>nd</sup> year	64.05
	3 <sup>rd</sup> year	64.50
	4 <sup>th</sup> year	65.50
Scholastic standards	≥ 50%	66.81
	< 50%	65.37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66.93
	No	65.78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63.49
	No	65.56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65.45
	No	65.00

### 3.5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관계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사이에 상관계수는 유의하였다( $r=.20$ ,  $p<.001$ ) <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ability and disposition (N=387)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ability
	.20 (<.001)

## 4. 논의

최근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회귀질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간호하게 되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 간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안에서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의 두 부분인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각각 알아보고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년별 차

이, 성적, 임상실습, 문제중심학습 및 비판적 사고과목 수강유무를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아져도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상반되는데[1,12], 이는 본 연구는 387명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적 연구이고, Shin 등(2005)의 연구에서는 3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적연구로 연구 설계 방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Beckie 등(2001)의 연구와는 도구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적용한 교육과정이 시간, 방법, 대상 등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게 설계된 요인들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Ya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년제 대학교 4학년 학생들, 3년제 대학 3학년 학생들, RN-BSN과정 중 4학년 학생들 중에서 비판적 사고과목을 수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생들 중에서 비판적 사고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년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최근 대학교에서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교양으로 교과목을 신설함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법 및 교수법이 도입되면서 이와 같이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처럼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비판적 사고과목 수강 유무와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문제중심학습 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결과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였다[13].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특정 과목 수강 대상 · 기간 · 시점 · 범위 · 사전지식 등의 차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른 선행 연구결과에서 각각 다르게 설정되었으며 자세히 제시되지 않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연구 결과의 일관성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임의 표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그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된 결과라는 점에서 일치성의 한계를 둘 수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하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어느 정도의 장기간이 요구되는 잠정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으로 분리되고 두 요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각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4]. 비판적 사고성향은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비판적 사고력은 교육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관관계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비판적 사고에 대해 거론이 될 때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으며,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재연구들에 있어서도 그 효과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 원인들 중에 실질적으로 대학교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교수법, 교과목 등을 실시하는데 그 후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나 비판적 사고에 대한 평가 시에 비판적 사고성향만을 측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에 결과 또한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으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의 한쪽 측면만을 측정한 후 그 결과들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사료된다. 분명한 건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므로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과정안에서 비판적 사고의 함양에 대한 측정 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측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다른 요인들과 관계 연구 시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리해서 각각 측정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

의 수렴 타당도가 낮게 나와 비판적 사고력과 성향을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15].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는 한쪽 파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두 요소인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결합이 잘 되었을 때 비판적 사고가 창조 될 수 있다고 하였다[16].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진로결정 수준이 향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7].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조 편성을 하고, 각 조의 성향에 맞게 접근방법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면 비판적 사고의 양쪽 측면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18]. 또한 최근 대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19], 간호교육과정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 시 Kim(2014)이 분류한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따라 관리하는 중재방안 개발 시[20], 개인적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께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현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상실습 및 특정과목 수강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차이는 비판적 사고력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판적 사고성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기질로서 단시간에 변화하기는 힘든 경향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간의 이러한 차이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난 점과 비판적 사고성향 위주의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및 평가 또는 비판적 사고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유무를 살펴볼 때 비판적 사고의 두 파트를 모두 측정하여 평가하고 개발하는 추후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 ACKNOWLEDGMENTS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thesis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REFERENCES

- [1] K. R. Shin, J. Y. Ha, K. H. Kim,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2, pp.282-289, 2005.
- [2] S. H. Park,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3, No. 4, 93-112, 1999.
- [3] J. Y. Lee, S. Y. Park.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Environme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0, No. 2, pp. 145-153. 2014.
- [4] S. C. Jeong, D. Y. Jeo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7, No. 4, pp. 443-450. 2011.
- [5]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 dissertation*, 2004.
- [6]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2, pp. 222-231. 2005.
- [7]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 Nursing, Vol. 18, No. 1, pp. 71-78, 2011.
- [8] S. H. Kang, D. H. Kim,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nstruc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5-1, pp. 25-44, 2006.
- [9] S. J. Shin, D. Y. Jung,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science: A literature review.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1, No. 1, pp. 117-128, 2009.
- [10] S. A. Yang, D. Y. Jung,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bout student nurs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6, No. 1, pp. 156-165, 2009.
- [11] S. H. Park.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3, No. 4, pp. 93-112, 1999.
- [12] T. M. Beckie, L. W. Lowry, S. Barnett, Assessing critical thinking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Holistic Nursing Practice, Vol. 15, No. 3, pp. 18-26, 2001.
- [13] Y. J. Son, Y. A. Song, Effects of 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courses on student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43-52, 2012.
- [14] R. J. Raymond, Relationships among bilingualism,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8, pp. 220-229, 2002.
- [15] H. Y. Lee, K. S. Oh, Y. H. Ahn, S. J. Lee, I. J. Kim, Exploratory study on scales of nursing education outcom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53-60, 2010.
- [16] K. Edward, M. S. Jared, W. Daniel, H. Paul, H. David, O. Bridget, Thinking critically about critical thinking: ability disposition of both?. Medical Education, Vol. 31, pp. 155-160, 2011.
- [17]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18] M. R. Elizabeth, Quantitative research on critical thinking and predicting nursing students' NCLEX-RN perform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9, No. 7, pp. 378-386, 2002.
- [19] J. w. Lee, K. h.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20]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유 승 희(Yu, Seung Hee)**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군장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보건, 아동
- E-Mail : shyu@kunjang.ac.kr

**강 정 희(Kang, Jung Hee)**



- 199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3년 8월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간호학과 (박사)
- 2005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 연구방법
- E-Mail : jeonghee@jbnu.ac.kr